

머크, 납세자의 날 장관 표창

글로벌 제약·화학기업 머크(Merk)는 3월4일 평택세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.



한국 머크(대표 미하엘 그룬트)는 2007년 성실납세 재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, 지속적인 연구개발(R&D) 투자로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산업자원부 외국기업의 날 국무총리상, 2010년 지식경제부 외국기업의 날 대통령 표창, 한국-EU 산업협력의 날 최고 투자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다.

머크는 1989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2002년 국내 최초로 액정 생산 및 R&D 센터를 설립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.

LCD(Liquid Crystal Display)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40억원을 투자해 2010년 5월 평택 포

승산업단지에 첨단기술센터, 2011년 10월 OLED(Organic Light Emitting Diode) 응용개발연구소를 개소한 바 있다. <강슬기 기자>

<화학저널 2014/03/05>